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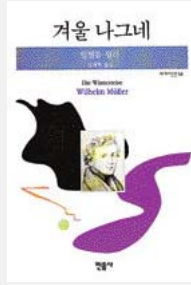
시끌벅적 e-스타



전남고 강타한 '텔미 열풍'

고등학교로 보이는 남학생이 여성 5인조 그룹 '원더걸스'의 히트곡 '텔미'에 맞춰 손가락을 찌르고 엉덩이를 흔들며 춤을 춘다. 동영상에 나오는 장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광주시 지하철 상부역 특설 무대와 시청 앞, 세정 아울렛 분수대 광장 앞 등이다. '전국을 휩쓴 텔미 열풍, 전남고에도 불었습니다'라는 부제가 붙은 이 동영상은 지난 27일 인터넷 포털 싸이월드와 네이버에 올라온 뒤 수천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동영상에서 텔미 음악에 맞춰 찌르기 춤과 팔찌 춤, 어깨 춤을 추는 주인공은 신대섭(18·전남고 2년)군. 방송반 친구가 축제에 출품할 작품을 찍는데 도와달라고 해 재미삼아 야간 자율 학습 시간을 틈틈이 촬영해 찍었을 뿐인데 유명세를 타고 있다. 신군은 동영상에서 차마에 스타킹까지 신고 화장까지 한 뒤 춤을 추는 열정을 보여주며 네티즌들의 호응을 얻었다. 신군은 "처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려니 약간 쑥스러웠는데 하다 보니 자신감이 생겼다"면서 "음악 소리 때문에 공공 장소에서 허락을 얻기가 쉽지 않았는데 관계자 아저씨들이 흔쾌히 허락해줬다"고 말했다. 수준급 춤 실력에 공부를 소홀히 하는 것도 아니다. 반에서 2등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고 한다. 신군은 "화창 시절 친구들과 추억을 만든 소중한 경험"이라고 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나의승의 음악산책



저편 마을 한 구석에, 거리의 악사가 서 있네 얼어 붙은 손가락으로 손풍금을 빙빙 돌리네 아무도 들어줄 이 없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네 개들만 그 늙은이 주위를 빙빙 돌며 으르렁 거리고 있네 그래도 그는 모든 것을 되는데로 내버려두고 손풍금을 돌린다네 그의 악기는 절대 멈추지 않는다네

슬픔에 빠진 방랑 가객 '거리의 악사'

모든 계절이 그렇겠지만,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할 때 생각나 찾게 되는 음악이 있다. '겨울 나그네'는 반드시 그런 음악의 목록에 오른다. '겨울 나그네'는 슈베르트의 대표작 걸작이라 하겠지만 사람들은 대개 음악을 들을 때, 음반을 들여다보는 일을 습관처럼 하게 되는데, 그 때 만나게 되는 '빌헬름 뮐러'라는 이름이 있다. 19세기 초, 소박함과 가슴 가득한 감성을 내장한 독일 문학의 대표인물이다. 슈베르트는 우연히 그의 글들을 읽고 창작 의욕을 강하게 느낀 나머지 그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곧바로 가져가 곡을 붙였다고 한다. 최근 '겨울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빌헬름 뮐러의 시집이 한권 나왔다. 그와 비슷한 시기에 우리는 다산 정약용 추사 김정희를 생각할 수 있지만, 타임머신을 만난 기분이다. 200년 전의 글, 책에 나온 시인의 머리맡은 이렇게 시작한다. "그대들을 초대하고 싶다. 어여쁜 숙녀, 현명한 신사들이여, 그대들은 멋진 이야기를 듣고 보는 것을 좋아하니 반짝 반짝 빛나는 새 연극을 보여 주겠다." 그럴 시공간의 여유가 있거나 하다면, 겨울 나그네를 들으며 시집을 손에 들어 보는 것도 좋을 일이다. 독일의 리트, 탁월한 겨울 나그네의 연주는 적지 않다. 프리츠 분더러, 피셔 디스카우, 스비아토슬라프 리히터의 피아노와 함께한 피터 슈라이어, 그리고 최근의 이안 보스트리치 등 음악은 아름다우면 되기 때문에 그 어느 연주를 들어도 좋겠고 그럴 때 온갖 시를 마음으로부터 내려놓을 수 있다면 더욱 좋을 일이다. 마음이 낮을 때 마음의 문이 더욱 열릴 수 있고, 그러한 음악과의 소통이 더욱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요즘 겨울 나그네의 첫곡 '구테 나흐트'와 갈곡 거리의 악사(Der Leiermann: 데어 라이어만)를 즐겨 듣는데 슬픈 거리의 악사의 노랫말은 이렇다. "저편 마을 한 구석에, 거리의 악사가 서 있네, 얼어 붙은 손가락으로 손풍금을 빙빙 돌리네/ 아무도 들어줄 이 없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네/ 개들만 그 늙은이 주위를 빙빙 돌며 으르렁 거리고 있네/ 그래도 그는 모든 것을 되는데로 내버려두고 손풍금을 돌린다네/ 그의 악기는 절대 멈추지 않는다네" 2세기전, 슬픔에 빠진 방랑 가객의 심정은 그러했던 모양이다. 그리고 보니 거기에 더불어 놀이패 신명의 최근 이야기가 생각 나는데, '도깨비 난장-하느님 우리의 하느님'이라는 타이틀로 기억된다. 시청의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의 이야기를 다뤘다는 이유로 공연을 하기로 돼있던 5·18기념문화센터로부터 공연 거부를 당한 일이 있었다. 낮은 곳에서 시대를 살아가는 민중의 슬픈 이야기를 나누는 창작물이 다른 곳도 아닌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거부를 당한 것이다. 공연자들의 심정은 어쩌면 겨울 나그네에 나오는 거리의 악사와 같았을지 모른다. 찬바람 부는 계절 일지라도, 안타까운 심정에, 건담한 이성과 올바른 정신으로 우리들의 시대가 이끌어 갈 수는 없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겨울 나그네와 더불어 되새겨 본다. <음악 칼럼니스트>

뉴스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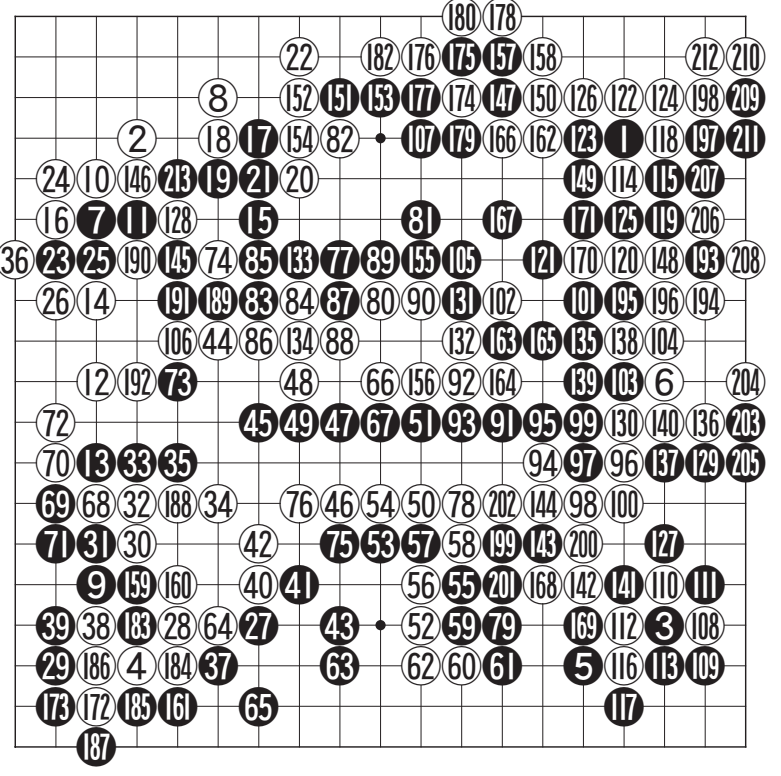
91. 오는 12월 19일 열리는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후보들이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시작했습니다. 후보들은 27일부터 22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에 착수, 초반 판세 정악을 위한 세물미와 이슈 선전에 나서게 됩니다. 지난 1948년 초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이후 올 대선은 몇 번째 치러지는 것일까요? ①17대 ②27대 ③37대 ④47대

참여 방법 /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 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상전자 고급 진공소기 1대, 2위 무동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 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29일 (음 10월 20일 丁卯)

- 36년생 좋은 매너가 좋은 관계를 만드니 베풀어라. 48년생 희망찬 설개로 모든 일이 순재수기다. 60년생 큰 계획은 중단하고 실리 찾아 집중. 72년생 남의 말을 골똘히 살펴라. 84년생 협조자가 생기자 新事는 피하고 先吉後凶으로 간다. 행운의 숫자: 23, 43
37년생 병약한 길목이니 피곤이 중해질까 두렵다. 49년생 사기에 영입 수니 신중하게 움직여라. 61년생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으니 준비를 잘하라. 73년생 수족을 살펴보고 관리에 힘쓰라. 85년생 색정에 휘말릴 수 있다. 행운의 숫자: 10, 43
38년생 부부간에 연애가 발생하니 오늘은 참아보라. 50년생 가까운 친척으로 손재수가 있을 수다. 62년생 생기가 있는 희망이 찾아오는 형상이니 준비하고 있라. 74년생 욕심은 금물이다 차분하게 점점하라. 행운의 숫자: 06, 44
39년생 문서가 새롭고 승진 열전 경사가 있을 수다. 51년생 모든 일이 즐겁지만 마무리가 아쉬우나, 63년생 저울부터 끝까지 신중히 신중하라. 75년생 협조자가 안 보이고 혼자서 외로우니 주변인들에게 베풀어라. 행운의 숫자: 02, 28
40년생 흥이 북으로 변한다. 52년생 자신의 불행사가 주변에까지 미치지 혼자서 조심하라. 64년생 집안의 시끄러움이 밖으로 날아간다. 76년생 복이 흥으로 되니 속고하고 이웃에게 자신을 베풀어라. 행운의 숫자: 22, 42
41년생 부부간에 갈등이 변동으로 나타나다. 53년생 외부적인 것보다는 내적 활동을 집중하라. 65년생 좋은 친구가 찾아오니 옛 정을 유지하라. 77년생 생소한 길목에서 절정하기 어려우니 과감하게 결정하라. 행운의 숫자: 13, 16
42년생 도깨비 발등을 찍힐 수니 근간을 주의하라. 54년생 하는 일이 중단될 수도 있다. 66년생 주변에서 시끄러운 문제가 다가온다. 78년생 원거리 여행은 조심해서 행하라. 행운의 숫자: 05, 39
43년생 바람이 일아날 수니 중정하며 지내라. 55년생 생활에 만족하고 바른 생활을 해야 한다. 67년생 풍류에 휩쓸려 허세를 떨을 보낼 수도 있다. 79년생 남여간에 이성이 빠질 수니 정신을 차려라. 행운의 숫자: 01, 26
44년생 문서와 제물이 새롭게 생겨나니 고맙게 생각하라. 56년생 좋은 일이 좋고 매우 좋은 방법이 따로 있다. 68년생 걸 단고 속다른 주변인이 방해를 도모한다. 80년생 형제 수호인으로서 인해 불행사가 발생한다. 행운의 숫자: 19, 41
45년생 새로운 일을 찾으니 아직은 시기상조로다. 57년생 고목회중의 기쁨은 신뢰만이 얻는다. 69년생 과묵하던 사람이 협조자로 변하자 凶變福化로다. 81년생 과묵은 금물이나 자기의 내심도 챙겨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24, 31
46년생 득보다 실이 많고 상부상조할 기회가 생기니 손실이 걱정된다. 58년생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희망적인 징후가 보인다. 70년생 작은 일을 주의하라 시비가 발생한다. 82년생 흥은 가고 길사가 접근한다. 행운의 숫자: 18, 35
47년생 배우자편에 불행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 59년생 좋은 일과 연결되는 형상이다. 71년생 시기 잘못 모함으로 손실이 우려되니 꼭꼭 참아는 조심하라. 83년생 우연으로 길사와 연결되니 오래는 못 간다. 행운의 숫자: 04, 32

www.cafe.daum.net/sajoo114 ☎11-632-6121
더마플라스트 밴드
제문구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



제3회 전남지사배 문병권 첫 우승컵 총보(1~213)
전국 아마최강 결승전 白 박문홍 7단 黑 문병권 6단
이번 대회는 전국의 아마강자들이 총출동한 최강자부를 포함, 전남의 예기가들이 참가한 일반부와 여성부 그리고 어린이부 등 5백여명의 참가했고 대회장인 영암 실내체육관은 축재분위였다.
이튿날 열린 본선 시험부터는 구립의 도기전시장으로 옮겨 폐작하고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는데 특히 본선진출자들에게는 전통 한옥속 박과 한식부페등 일체의 식사까지 무료제공하여 각지에서 찾아온 참가자들에게 찬사를 받기도 했다.
이번 대회에서 집중조명을 받았던 아마최강부에서 광주출신 문병권군이 전국대회 첫우승을 차지했고 역시

바둑소식
목진석, 농심배서 첫승
목진석 9단이 28일 부산 농심호텔에서 열린 제9회 농심신라배 세계 바둑최강전에서 일본의 야마다기미오 9단을 278수 만에 백 3집 반으로 꺾었다.
2연승에 도전하는 목 9단은 29일 중국 선수와 맞대결한다. 중국에서는 후야오위 8단의 출전이 점쳐지고 있다.
9회 농심신라배의 제한시간은 각자 1시간, 초읽기 60초 1회이다. 우승 상금은 1억5천만원이며 연승상금은 3연승 시 1천만원이 지급하며 이후 1승을 추가 할 때마다 1천만원이 더 지급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Language learning section with four columns: 1. How much do I owe you? (English to Korean/Japanese/Chinese), 2. まるで「鳥の行水(ぎょうずい)」ね. (Japanese to Korean/Japanese/Chinese), 3. 快要开始了. (Chinese to Korean/Japanese/Chinese), 4. 절영지회(絶纒之會) (Korean to English/Japanese/Chinese). Each column includes a question, multiple-choice answers, and a short dialogue.